

## 전쟁연습은 북남관계개선의 기본장애물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수만명의 미군과 방대한 첨단 핵전쟁장비들이 남조선에 쏟아들어오고 미국국방부 부장관이 이른바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을 현지에서 화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한편으로 청와대 지하실에서는 《울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호전적발언들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주민들까지 동원하는 《민방공대피훈련》이 벌어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불장난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있다.

전쟁소동과 관계개선을 위한 북남대화는 랑립될수 없다.

올해초에 공화국의 성의있던미군이 우리 겨레가 사는 남반구에 침략의 군화발을 들이민지도 어느덧 69년이 되어온다. 불청객이 남의 집에 들어와 그것도 하루이틀 정도가 아니라 반세기이상이나 틀고앉아있었다는 그 집안은 도대체 편안할수가 없다. 강도가 그 도망이라던 더 말 할나위가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바로 그 럽치었고 뻔뻔스러운 강도이다.

그럼에도 집주인을 지켜준다고 거짓말을 해대며 나날짐을 안고있었다. 딱 하면 주먹질

을 하고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그 강도를 《운명의 소호선》이라도 되는듯이 집사람들이 파맴홀러 두는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나가지 말라고 바지가쟁이를 붙잡는것도 한심하기 위례에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남조선강점 미군.

그 미군이 남조선에 없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세상은 얼마나 평온했을까고 그 누가 말할듯이 정말 우리 겨레가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이 될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 그날은 이 땅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없어지는 날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

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구위급접촉이 열리고 여러해만에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는 등 시작을 좋게 매겼던 북남관계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파국상태에 빠진것을 남조선당국은 심각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데는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올해초 북남직접사실무접촉이 진행되고있을 때 미국의 핵전략목격기가 조선전해상공에 날아들어 핵폭탄두하 훈련을 벌리였는가 하면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던 시각에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져 겨레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 규모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데 대한 동족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함으로써 저들의 반통일자세를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지금과 같이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이 날로 증대되는 속에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간판을 들고 미국과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는것이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치겠다고 하면서 상대선의로는 어떻게 쌓겠다는 것인가.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니, 《통일》이니 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북남관계의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있는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에는 《작전계획

69년전 분렬시작의 그날로 돌아간다면 이 땅에 38°선표말을 박은것은 미군임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무한정 타고앉아 오늘까지도 북남관계개선과 우리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해오고있다.

미군이 쏘아대는 전쟁총포성때문에 이해에 모처럼 조성되려고 했던 북남관계개선은 싹도 튀워버지 못하고 사라졌었으며 조선반도와 우리 겨레는 새로운 랑전의 회생물이 될 위 협까지 떠안게 되었다.

그 미군이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것이다.

세인의 치를 떼게 한 남조선에서의 동두천인민행기철사건, 윤금이사해사건, 두녀학생 장갑차살인사건과 같은 온갖 미군만행도 영원히 없어지게 될것이다.

평화로운 땅, 통일되고 번영하는 땅, 이것이 미군이 없는 조선반도의 화폭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남조선에서 미군이 없어지는것은 너무나도 좋고 또 좋은 일인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5027》을 기반으로 《평양정령》, 선제타격, 국지전이 벌어지는 경우 미군태평양사령부소속 전력이 개입해서 대응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 《말로는 《통일대박》을 웨치고있는 《정부》가 실제로는 군사훈련에 혈안이 돼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현해야 할 때》이라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결론은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들을 전면계단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여 벌리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지금 미국은 내외의 비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과 함께 조선반도의 남쪽에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 연습기간에 그 누구의 《핵, 미싸일사용종류》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무력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의 호전세력과 함께 《평양정령》을 노린 최대규모의련합상륙훈련으로부러 불의적인 《군사분계선돌파》훈련, 《북침령후 행정단위복구》훈련, 공화국의 수뇌부를 노린 특수작전훈련 등 선제공격적인 군사연습들을 이어달리기식으로 벌려왔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른바 《북붕괴》를 전제로 한 북침전쟁연습들에 이어 핵선제공격을 공식화한 《맞춤형억제전략》까지 공언히 실제로 적용하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도한차례의 핵위협공갈이고 도발이다.

그 위험한 전쟁책동의 밑바탕에는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침략정책인 《전략적인내》가 깔려있다.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은 공화국이 저들에게 굶어들고 무너질 때까지 기다

우리 겨레에게는 온 민족의 총의가 반영되고 내외의 지지환영을 받았으며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된 훌륭한 통일원칙과 북남합의들이 있다. 7.4공동성명이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 북남수뇌들이 합의공표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6.15통일시대에 북남당국과 민간, 경제계, 종교계 등 각이한 계층들사이의 대화와 공동행사를 통해 마련된 합의들과 그 실천과정에 리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북남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돌고돌아 얼리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북남합의들이 제대로 리행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한후 지난 시기의 북남합의들을 리행하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그 무엇을 자꾸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복잡성만 조성하고있다.

그들이 비무장지대안에 《세계평화공원》을 꾸리자고 하는것이나 《인도적문제해결》, 《민생인프라구축》, 《주민간통질서회복》과 같은 제안들, 며칠전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환경협력의 통로》, 《민생의 통로》, 《문화의 통로》구축과 같은 문제들은 북남관계의 본질적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부차적인 문제들이다.

## 이미 이룩된 합의리행이 기본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치, 경제, 문화, 인력특별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와 협력하는 것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도들이 다 들어있다.

6.15시대에 활성화되어온 각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들이 재가동된다면 구래

여 북남당국이 마주앉아 다시 협력의 틀을 짜느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것이며 당장이라도 화해와 단합,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갈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사업이나 철도도로련결, 사회협력사업들도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다 반영되어있는 문제로서 선언들이 리행되면 원

만히 해결될수 있을것이다.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안에 《세계평화공원》을 꾸리자고 하는 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미 북남이 합의한 10.4선언에는 서해평화협

역특별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가 다뤄져있다. 6.15시대에 북남이 합의하여 수많은 남남인민들이 다녀간 금강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평화공원이다. 구태어 없는 돈을 뿌려가며 《세계 평화공원》을 새로 꾸린다고

할것도 없이 이미 북남이 마음놓고 평화롭게 관광을 즐기던 이런 곳을 다시 되살리면 그만일것이다.

하기에 금강산기업인협의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경제계와 사회계의 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은 《남북경협교류의 시작이었고 남북평화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 고있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채택한 민족공동의 귀중한 합의문건들마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백지화되고 당리당략의 희생물로 악용된다면 당국사이에 합의를 열백번 한들 소용이 없으며 북남관계는 계속 진통과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통일에 관심이 있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들부터 인정하고 존중하며 리행하는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곽창호

화국의 현실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하루강아지 가 달을 보고 짓는다고 해서 달빛이 흐려지는것이 아니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이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목격기를 동원하여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늘일수록 공화국은 더욱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자위적무장력을 계속 강화해나간다.

목표의 한계가 없고 타격이 무자비한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은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다.

력사는 반복되고 전통은 이어진다고 한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도발의 력사는 계속되고 그속에서 공화국의 승리의 전통, 미국의 패배의 전통은 이어진다.

《전략적인내》, 과연 백년을 가겠는가, 천년을 가겠는가.

현 미국행정부의 집권이 과연 몇년 가겠는가.

《전략적인내》에 매달리면서 《맞춤형억제전략》과 같은 무모한 핵불장난을 하는 미국의 선택이 어떤 비참한 종말을 가져다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은 엄숙히 신고하였다.

승지와 참혹한 패자를 가르는 운명적인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미국이 《전략적인내》에 계속 매달린다면 궁극에는 파멸만이 차게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한 세기 이상 쓰고있는 식민지명예 (3)

## 《조약》과 《협정》으로 본 남조선미국관계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체모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자주적인 주권국가라하면 다른 나라와 조약과 협정을 맺을 때 자주성의 원칙, 내정불간섭과 평등완정, 주권의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 침략금지과 평화수호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 《정권》은 이러한 원칙들이 완전히 무시된 《조약》과 《협정》을 맺고있는것으로 하여 식민지예속 《정권》으로 락인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체결한 《호상방위조약》은 그러한 《조약》의 대표적인것으로 되고있다.

《호상방위조약》은 미국의 《륙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령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남조선당국이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제

4조)하며 《이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제6조)고 규정하고있다.

말그대로 이 《조약》은 남조선전역에 대한 미군의 무기한 군사적강점을 합법화해주고있다.

미국은 이 《조약》을 구실로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군사기지로 빼앗고 군사적침략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남조선의 실재적인 통치권을 틀어쥐고 군사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사회전반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다른 나라, 지역들에 강요한 《군사조약》 가운데서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만큼 평등무상으로 무기한 강점하는것을 규정한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은 없다.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이야말로 남조선에 대

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의 상징이고 식민지지배의 명예이며 민족적불행과 치욕의 대명사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체결한 《행정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행정협정》은 남조선강점미군의 치외법권을 합법화해준 강도적인 《협정》이다.

실제로 이 《협정》에는 《공무집행중》에 저지른 미군의 범죄에 대한 《제1차적 재판권》을 미군당국이 행사하며 《공무중》인가 아니냐 하는 《판결권》도 미군이 가진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미군범죄자에 대한 《구금》과 《구금시설》에 대한 규정도 미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으며 미군이 입힌 재산피해와 관련한 《민사청구권》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처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강도적인 《협정》의 보호하래 미군은 남조선

에서 온갖 범죄와 만행을 저지르지않고 감행하여왔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참으로 크다. 10여년전 길가던 남조선의 나 어린 두녀학생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군살인범들이 《무죄》선고를 받고 본국으로 뺑소니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던것이다 이런 치욕의 《협정》이 있어서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제2의 《을사5조약》으로 락인하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이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남조선에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불평등조항이 무려 55개에 달한다고 한다.

자동차통아만 보아도 미국은 4년동안 저들에게 수출되는 남조선의 자동차들에 대해 현재의 관세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을뿐아니라 4년후 관세가 철폐된 뒤에도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하구있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돈과 바꾸겠다는것과 같다고 하면서 그는 찰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0여일째 단식투쟁을 벌리고있는 한 유가족은 리운보단 인간의 생명을 위해야 한다고 하면서 찰사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라는것이 자유무역의 간판밑에 자국기업들을 보호하고 살찌우며 남조선에 경제적으로 더 깊숙이 침투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체결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남조선경제는 미국에게 마음대로 주물러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창녀와 같은 처지에 빠졌다고 비판을 표시하였는가.

이처럼 세상에 가장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조약》과 《협정》을 통해서도 남조선의 대미예속성을 똑똑히 알수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마련을 요구하여 무기한 단식통성을 이어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소속 신부는 우리는 유가족이 원하는 진실을 밝혀낼 특별법제정을 주장한다고 언명하였다.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갖추어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